



관계를 다시 만듭니다

과거로 부터 배우고
우리는 자연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생각합니다.

공원에 사는 비버의
관리를 위해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새로
태어난 비버는 다시 예전
거주지로 돌아가기도
하였고 건강한 자연에
중요한 비버를 옮기면서
균형이 깨져 자연이 잘못
될수도 있습니다.

비버의 활동이 자연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새로
배웠으니, 비버를
반대하지 않고 모두의
관심인 우리가 같이 함께
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Friend of Fish

Creek단체는 비버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산책로가
잠기지 않게 수위를
조절하면서 비버가
겨울에도 살 수 있도록
pond levelers와 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함께 해요!

빗물 담는 생태연못과
비버가 만든 댐으로
만들어진 연못이 어떤

비슷한 역할을 하는지
생각합니다.

Ellie Cho 옮김

Katie Bakken 이미지 제공

